

##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 『현장에서 본 서울시 인쇄산업의 실태와 과제』

### 목적

- 해당분야의 전문가 발표 및 이해당사자 간 토론을 통해 서울의 민생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8년 2월 9일 15시
- 장소: 서울인쇄센터 2층 교육장

### 발표주제 및 토론자

- 황일하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센터장, '서울 인쇄소공인 집적지 생태현황과 과제'
- 김태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 도심인쇄산업의 실태와 과제'



[부록 그림 1] 인쇄산업 민생경제 포럼

## 주요 토론 내용

- 인쇄산업의 특성
  -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3.9명에 불과하고,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 수가 전체 사업체의 93.6%를 차지하는 등 영세 소공인이 대부분을 차지
  - 수주산업이라는 인쇄산업의 특성상 발주처나 원청업체 상황에 따른 연동 가능성이 크고, 내수시장의 변동에도 크게 좌우되는 경향
  - 구조적으로도 방대한 하청사슬 시스템 구조로 상시적 위험요소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인쇄업체의 규모가 작고 범위가 단품목이기 때문
- 서울시 중구 인쇄 집적지의 특성
  - 인쇄산업은 서울시 중구 을지로, 광희동, 충무로, 인현동, 필동 일대 15개동에 분포하고 있고, 이 지역이 서울시 전체 업체의 68%를 점유
  - 주요 업종은 ‘인쇄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등이며, 주요 생산제품은 책자, 상업인쇄물, 사무용인쇄물, 판촉인쇄물 등의 인쇄물
- 정부 및 지자체에 바라는 정책
  - 인쇄소공인 사업자 중심의 정책방향 수립: 현장 밀착형 지원제도 수립 및 실행, 인쇄업종 정책 수요자들의 참여와 자생할 수 있는 생태환경 제공,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공동체 협업으로 지속적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등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환경개선: 맞춤형 교육 설계 및 실행,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보완하는 교육 정책방향, 숙련 기술인력의 경력DB 구축 및 지속적 관리, 인쇄집적지 기반 인프라 환경과 활성화라는 복합적 문제를 동시에 해소
  - 협업생산을 위한 공동작업 인프라 구축: 공동인프라 구축, 지식센터, 디자인센터, 콘텐츠센터, 3D 프린팅센터 등 구축
- 인쇄산업의 트렌드
  - 현재 인쇄산업은 아날로그 필름, 오프셋 인쇄 방식에서 디지털 프린트 방식으로 변

화하는 단계이며, 필름, 제판 공정 등의 생략으로 작업이 단순화되고, 공간도 쾌적화 되는 추세

- 각종 보고서, 논문자료, 교육자료, 판촉물, 광고지, 포장용기 등 개인화 트렌드에 따라 생산방식도 인쇄물에서 패키징까지 다양한 고객 수요에 대응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방식으로 변화
- 기존 종이 중심의 인쇄에서 디지털 매체, 3D 프린팅까지 확대·진화되는 등 인쇄매체가 다양화
- 친환경 제지와 잉크, 기술을 통해 인쇄과정 및 생산품의 친환경화를 추구하고 공해저감장치를 통해 인쇄 폐수, 화학잉크 등 유해물질 배출도 최소화
- 도심 인쇄산업의 특징과 한계
  - 신속·정확한 납품과 제품 감리를 위해 고객과 밀착된 도심입지가 필수이고, 생산품별로 다양한 인쇄공정으로 구분되어, 공정이 곧 개별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세분화
  - 그러나 미관, 소음, 악취, 폐기물 문제 등 도시관리 차원에서 정비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인쇄인 입장에서도 열악한 조업 환경이 큰 문제
- 인쇄산업의 비전 및 시책방향
  - 인쇄 밀집지역인 세운상가 축 재생을 통해 도심산업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확산으로 도심재생 완성
  - 인식전환 및 가치제고로 인쇄산업 재조명, 환경개선 및 유지기반을 마련해 입체적 집적, S/W 측면의 재생지원으로 인쇄산업의 활력강화를 지원
- 도시계획적 측면의 인쇄산업 활성화 실현 방안
  - 인쇄전용 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 지식창조 및 문화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인쇄역사박물관 조성, 인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세운 재정비촉진계획의 일부 변경,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여 종합적 재생지원 추진

# 부 록

## 토론 정리 및 전문가 코멘트

- 인쇄는 매출이 작고 하청 위주의 구조라 영세해서 젊은 인력의 유입이 저조하며, 디지털 인쇄 분야에서만 젊은 인력이 일부 들어오는 실정
- 인쇄는 완제품이 아닌데 정책 방향이 완제품 회사 위주로 되어 있어 불합리
- 5인 이하 소공인 업체가 많은데 대기업의 덤핑 처리 때문에 일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임. 관공서라도 최저가격이 아닌 제값을 지켜줘야 함. 덤핑 문제로 을지로에서 충무로까지 점차 밀려 내려가고 있음. 앞으로 인쇄업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이 있고, 돈이 있는 속칭 토지주만 가능
- 환경이나 미래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청년 유입도 없고, 인쇄업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



[부록 그림 2] 인쇄산업 민생경제 현장점검 포럼